

이란, 반정부 시위 우려

삼성선물

이란, 호르무즈 해협 바깥
봉쇄 준비 중

유가는 지난주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영향에 상승 마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외각에 배제 구역을 곧 선포하겠다고 밝힘. 레자이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이날 이란 국영 IRIB 방송에서 배제 구역은 미 해군의 봉쇄선에서 시작해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까지 확장할 것이라며 향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모든 선박이 제재 목록에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 이번 조치는 미군함 20척 이상이 상선들 90여척을 돌려보내고 이란 관련 유조선 3척을 공격한지 하루만에 나온 조치임. 다만 이란은 여전히 매일 석유 100~150만 배럴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 미국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의 석유 거래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주장하며 하루 평균 900만 배럴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고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세 완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간 원유 수출 데이터와의 괴리는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음.

미국의 지속적인 동참 촉구

미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을 보호하기 위해 중동 지역 밖의 동맹국과 우방국도 군사적 기여와 역할 확대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많은 나라가 연락해 협력하고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음. 아직 구체적인 국가나 지원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군사적 기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 중. 다만 최근 군사적 공격에서 경제적 제재로의 전환과 다른 나라들의 동참 촉구 등은 호르무즈 해협내 미군 활용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함. 또한 “핵합의가 없을 수도 있다”며 “합의는 이란의 차기 정부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부연. 미국과 이란이 핵합의에 이르지 못한채 이란 핵무기 능력을 군사적으로 무력화하는데 주력할 가능성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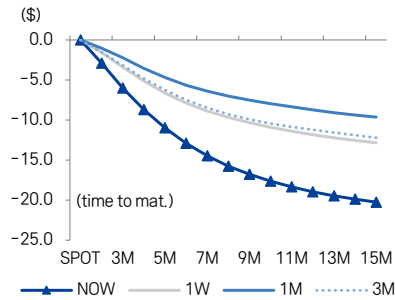
이란, 휘발유 가격 인상-
반정부 시위 우려 가중

이란이 미국의 제재로 촉발된 경제난에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 가격 인상을 결정. 지난 2019년에도 휘발유 가격 인상 문제로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던 바 있음. 이란 국민들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전세계 최저 수준의 이란 휘발유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가뜩이나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이란내 물류비와 운송비를 포함해 식품과 생필품 등 모든 물가가 연쇄 폭등하기 때문. 이란 정부는 이번 조치는 대량 휘발유 이용자에만 적용됨을 강조. 이란 평균 휘발유 사용량은 가구당 110리터인데, 소량 사용자인 60리터까지는 리터당 1.5만 리알(8원), 추가 50리터는 3만 리알(16원)에 구매하되, 110리터를 초과하는 물량은 원래 리터당 3만(16원)에서 리터당 10만 리알(54원)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힘. 이란내 평균 사용량이 월 110리터기 때문에 이란내 절반 가량의 사용자들이 특히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택시 기사, 화물 운송업자, 배달업자 등 생계형 운전자들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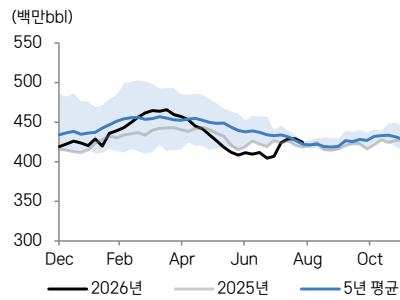
Energy

품목	월물	단위	시가	고가	저가	정산가	변동		거래량	미결제약정
							\$	%		
WTI Crude Oil	Oct	\$/배럴	91.67	92.17	88.72	91.48	△ 0.18	+0.2%	754382	1918529
Gasoline	Oct	\$/갤런	3.149	3.220	3.084	3.215	△ 0.080	+2.5%	199912	364815
ICE Brent Crude Oil	Nov	\$/배럴	95.95	96.57	93.15	96.28	△ 0.76	+0.8%	941281	2679872
Natural Gas	Oct	\$/MMBtu	2.926	2.986	2.902	2.975	△ 0.062	+2.1%	475307	1842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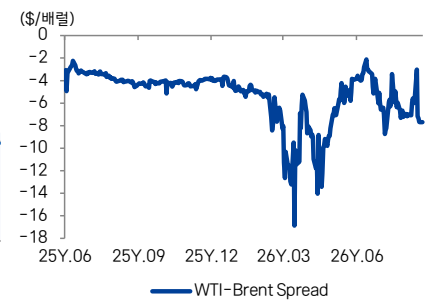
WTI Forward Curve



미국 주간 원유 재고 E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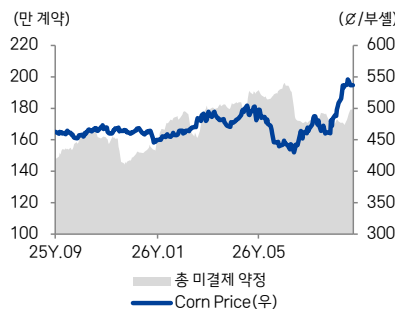
WTI-Brent Spr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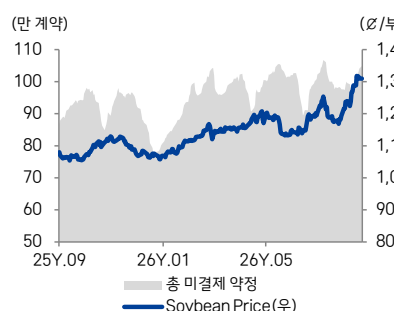
Agriculture

품목	월물	단위	시가	고가	저가	정산가	변동		거래량	미결제약정
							Cent	%		
CBT Corn	Dec	¢/bu	539	544.75	535.75	536.75	▼ 4.00	-0.7%	366,331	1,793,163
CBT Soybean	Nov	¢/bu	1316	1320.75	1305.75	1309.75	▼ 6.50	-0.5%	210,544	1,048,724
CBT Wheat	Dec	¢/bu	751.75	762.5	732.75	734	▼ 20.25	-2.7%	179,594	473,989
ICE Coffee	Dec	¢/bu	296.1	300.85	292.75	295.6	△ 0.25	+0.1%	25,379	154,469
ICE Sugar	Oct	¢/bu	18.01	18.48	17.92	18.07	△ 0.00	-	255,071	1,272,663
ICE Cotton	Dec	¢/bu	86.5	87.69	85.68	86.33	▼ 0.12	-0.1%	53,930	379,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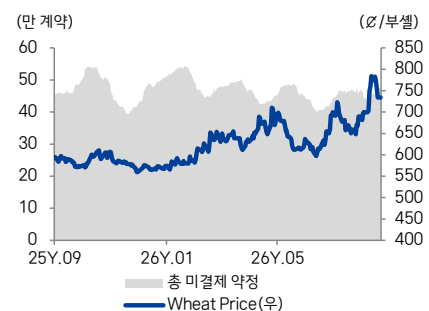
Co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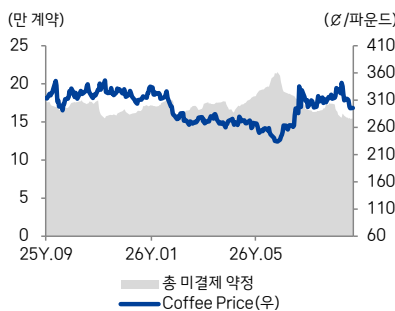
Soyb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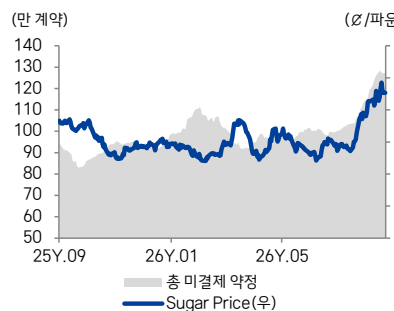
Whe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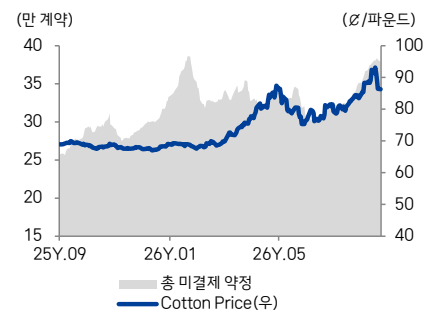
Coffee



Sug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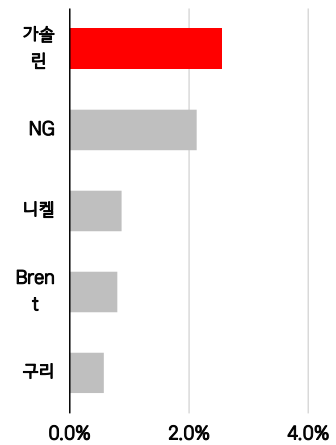
Cot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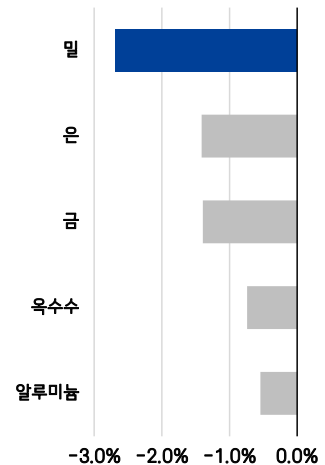
원자재 히트맵

	일간	주간	월간	월초대비	3개월	6개월	1년	연초대비
구리	+0.6%	+0.9%	+2.2%	+0.9%	+6.6%	+12.1%	+45.6%	+16.0%
알루미늄	-0.5%	+1.6%	+1.6%	+1.6%	-8.3%	-4.4%	+27.1%	+9.9%
니켈	+0.9%	+1.6%	+5.8%	+1.6%	+11.8%	+19.6%	+38.8%	+26.6%
아연	+0.2%	+0.1%	+1.2%	+0.1%	-4.8%	-2.3%	-3.9%	-5.1%
납	+0.4%	-0.1%	-1.6%	-0.1%	-9.3%	-3.6%	+10.6%	+1.2%
주석	-0.2%	-0.6%	-3.3%	-0.6%	+3.6%	+9.6%	+58.8%	+35.3%
금	-1.4%	-1.2%	+4.0%	-0.1%	+1.1%	-15.6%	+19.2%	-0.5%
은	-1.4%	-1.5%	+6.0%	-0.2%	-5.2%	-22.6%	+54.2%	-8.4%
WTI	+0.2%	+9.7%	+23.5%	+7.4%	+10.3%	+28.1%	+47.8%	+60.6%
가솔린	+2.5%	+5.4%	+23.6%	+4.2%	+20.2%	+44.8%	+73.3%	+86.6%
Brent	+0.8%	+9.3%	+23.7%	+6.9%	+10.9%	+28.2%	+46.7%	+60.0%
NG	+2.1%	+3.0%	+8.7%	-0.2%	-9.4%	-20.6%	-24.3%	-20.9%
옥수수	-0.7%	+0.0%	+16.7%	-0.2%	+20.3%	+10.8%	+17.0%	+16.6%
대두	-0.5%	+1.7%	+11.5%	+1.7%	+15.1%	+14.2%	+22.2%	+23.0%
밀	-2.7%	-6.4%	+11.0%	-5.2%	+20.0%	+12.6%	+25.0%	+30.0%
커피	+0.1%	-5.5%	-5.1%	-5.1%	+25.9%	+6.5%	-5.7%	-6.0%
설탕	-	+2.9%	+19.3%	+1.5%	+23.5%	+24.3%	+10.7%	+20.3%
면화	-0.1%	-5.5%	+4.0%	-7.3%	+11.4%	+25.4%	+25.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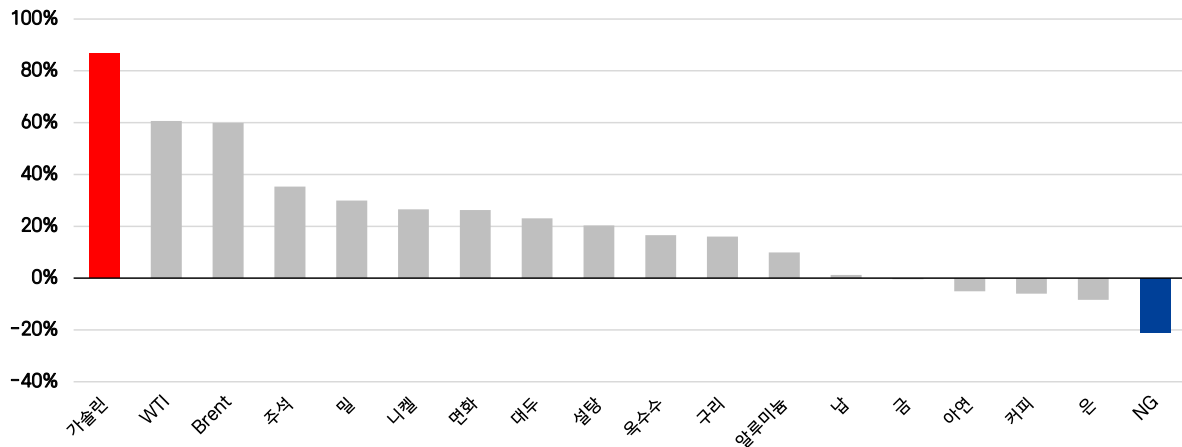
일간 상승률 Top 5



일간 하락률 Top 5



연초대비 상승률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파생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자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